

## 지역사회의 집합적 효율성과 범죄피해의 관계검증 :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윤우석\*\*

### 국 | 문 | 요 |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의 집합적 효율성이 지역사회의 범죄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특성인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주거의 불안정성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회적 교류를 결정지으며 사회적 교류(친구/친척관계 네트워크, 지역사회 조직의 활성화,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 지역주민들 간의 이웃관계)는 지역의 질서유지에 필수적인 집합적 효율성에 영향을 주어 지역사회의 범죄발생과 범죄피해를 결정짓게 된다는 가설을 검증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수행을 위해 대구광역시 8개 구에서 36개 동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각 동마다 20명의 시민들로부터 분석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센서스 자료를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로부터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획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사회의 집합적 효율성은 지역주민들의 범죄피해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할 수 있으며 그 관계는 부적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의 집합적 효율성이 강할수록 범죄피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지역주민들의 인적 교류 관련변인들은 기존 연구와는 달리 직접적으로 범죄피해를 예측할 수는 없었으나 집합적 효율성을 통해 매개되어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 주제어 : 범죄피해, 집합적 효율성, 지역유대, 주거의 안정성, 주민들의 인적교류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0-332-B00243)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 I. 서론

지역과 범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들 연구들의 이론적 뿌리는 시카고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빈곤, 주거 불안정성, 그리고 인종적 이질성과 같은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이 지역사회의 사회해체를 가져와 범죄가 빈발한다는 Shaw와 McKay의 고전적인 사회해체이론이다. 전통적인 사회해체이론에 기초하여 지역과 범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범죄학에서 생태학적 범죄학을 형성하였다(Bursik & Grasmick, 1993; Sampson et al., 1997; Shaw & McKay, 1942).

생태학적 범죄학의 논의들은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요인들이 어떻게 지역에 따른 범죄율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지역사회의 집단적 통제능력이라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Bursik & Grasmick, 1993; Sampson et al., 1997; 2002). 지역 주민들 간의 인간적 교류와 지역사회 조직의 활성화가 지역의 일탈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집합적인 능력을 만들어 내며 이러한 체계적인 프로세스가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징과 범죄의 관계 중간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Belliar, 1997; Bursick & Grasmick, 1993; Sampson, 1988; Sampson et al., 1997; 1999). 지역사회의 집합적인 통제능력이라는 개념은 비공식적 사회통제, 지역사회의 유대, 지역사회의 애착, 사회자본, 인적네트워크, 지역사회조직 참여, 집합적 효율성, 지역에 대한 책임감의 공유 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들로 불리며 사용되고 있다. 비록 개념들의 명확한 정의와 차별성이 문제(Taylor, 2002)되기도 하지만 연구들은 지역사회의 범죄문제가 범죄자 개인의 특성이나 범인성의 문제라는 기존의 미시적인 범죄학적 접근을 지역사회의 인적교류와 집합적인 범죄통제라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해석한다는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범죄발생의 거시적인 접근이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미국 등에서 주목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연구들에서는 수정된 사회해체이론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많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가진다(윤우석, 2010b). 물론 국내 연구에서도 지역사회의 변인들을 고려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다양한 형태로 지역사회의 범죄, 범죄피해, 그리고 범죄두려움에 지역사회 변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

려는 연구들(김성연, 2011; 김준호 외 2인, 2010; 박성훈, 2011; 박정선 외 1인, 2010; 이성식, 1998a; 1998b; 2003; 정진성 외 1인, 2010; 2010)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최근 국내에서도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지역사회의 집합적 효율성과 범죄피해의 관계를 지역사회 자료를 중심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특징인 빈곤과 지역사회의 주거불안정성이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교류, 지역사회의 애착, 지역사회조직에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들 간의 정서적 교류가 지역사회의 집합적 효율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집합적 효율성이 지역사회의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최종 연구모델은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특징이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교류와 지역사회조직에 영향을 주어 지역사회의 집합적 범죄통제능력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어 지역사회의 범죄피해의 차이를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 II. 이론적 논의

### 1. 사회해체이론과 수정된 사회해체이론의 주장

도시지역에서 범죄율이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자들의 오랜 연구대상이었다.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자면, 도심의 빈곤한 소외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빈번히 범죄와 무질서가 목격된다는 사실이다. 범죄발생의 차이를 설명해주는 요인으로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지역사회의 경제적 지위, 인종적 이질성, 그리고 인구이동률이다(Baumer, 2002; Browning et al., 2003; Crutchfield et al., 1998; Hipp, 2007; Jacobs & Helms, 1997; Kovandzic et al., 1998; Krivo & Peterson, 1996; Markowitz et al., 2001; Morenoff et al., 2001; Rountree et al., 1994; Sampson & Wooldredge, 1987 ).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도시지역의 범죄율의 차이가 도시의 구조적인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이론적 설명이 시카

고학파의 사회해체이론이다. 초기 사회해체이론은 지역사회의 범죄문제를 설명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하위문화가 원인인지 아니면 지역사회의 사회통제능력이 범죄를 유발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Shaw와 McKay는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특성인 빈곤, 인종적 이질성, 그리고 거주자의 불안정성이 지역사회의 해체를 가져오게 되며 사회가 해체된 지역에서는 범죄율이 높다는 주장을 펼친다. 그들의 주장에서 중요시 할 개념이 ‘사회해체’인데 Shaw와 McKay는 사회해체의 정의로 “공통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지역사회(Community's inability to realize common value)”와 “지역사회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목적의 달성을 위해 지역주민들을 규율할 수 있는 능력미약(Inability of a local community to regulate itself in order to attain goals that are agreed to by the residents of that community)”으로 정의함으로써 사회해체를 일탈적 하위문화와 사회통제의 약화라는 두 개념으로 동시에 설명하려 함으로써 개념의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Bursik, 1988). 이로 인해 사회해체이론이 일탈적 하위문화에 집중하는 연구자들과 지역사회의 집합적 사회통제에 관심을 가지는 학자들로 나뉘어 발전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Anderson, 1990; Browning et al., 2004; Bursik, 1988; Bursik & Grasmick, 1993; Wilson, 1987).

사회해체를 통제론적 시각에서 이해하는 수정된 사회해체 이론가들은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특성이 지역주민들의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사회교류를 방해하여 지역사회의 집합적인 사회문제해결능력을 감소시킨다고 이해한다(Bursik & Grasmick, 1993; Sampson & Groves, 1989). Kasarda와 Janowitz(1974)는 지역사회를 “사회화과정에서 유래되는 친구관계와 친족관계의 네트워크와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교류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체계”라고 정의내림으로써 지역사회를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지역사회를 인간관계가 중심이 되는 지역주민들과 지역사회조직의 유기체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특성인 빈곤, 인종적 이질성, 그리고 주거의 불안정성은 지역주민들의 인적교류를 약화시켜서 지역사회의 집합적인 사회통제능력을 감소시켜 범죄를 유발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주민들 간의 친구관계, 이웃교류, 지역사회조직에의 참여,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 지역사회의 유대와 신뢰

가 증대되는 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이주민들이 많으며 인구이동이 심한 지역에서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교류와 인적유대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Bellair, 1997; Kasarda & Janowitz, 1974; Lowenkamp et al., 2003; Markowitz et al., 2001; Rountree & Warner, 1999; Sampson, 1988; Sampson & Groves, 1989; Warner & Rountree, 1997).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자면, Sampson(1988)은 지역사회의 주거안정성이 지역주민들의 친구관계를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구조적 특성임을 보여주었다. Taylor(1996)는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이 강하며 지역사회조직에의 참여도가 높다고 한다. 한편, 지역사회의 인종적 이질성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유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Bellair, 1997; Warner & Rountree, 1997)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특성은 지역사회의 집합적인 사회통제능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의 빈곤, 인종적 이질성, 그리고 거주 불안정성은 지역사회의 사회질서유지 능력을 감소시킨다고 한다(Bellair, 2000; Hagan et al., 1978; Markowitz et al., 2001; Morenoff et al., 2001; Sampson et al., 1997).

## 2. 지역사회의 조직, 인적네트워크, 집합적 효율성

통제론적 시각에서 사회해체이론을 이해하는 범죄생태학은 사회해체를 측정하는 변수들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교류(Social Ties)와 지역사회의 사회 통제력을 주로 사용한다. 이론적으로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특성들이 지역사회의 사회교류나 사회 통제 -지역사회의 친구관계(Friendship)나 친족관계(Kinship) 네트워크, 지역주민들 간의 교류(Neighboring), 지역사회 조직에의 참여(Participation in Community Voluntary Organizations), 지역사회 애착(Community Attachment), 사회유대와 신뢰(Social Cohesion and Trust), 그리고 비공식적 사회통제(Informal Social Control) -에 영향을 줄 것이라 가정되며 지역사회의 사회적 교류를 나타내는 변인들과 지역의 집합적 사회통제능력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왔다. 지역사회의 사회통제는 공식적 사회통제와 비공식적 사회통제로 나뉘는데 공식적 사

회통제는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범죄통제능력을 의미한다면 비공식적 사회통제는 지역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통제능력을 의미한다(Sampson et al., 1997). 지역사회 주민들은 공통적으로 안전하고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추구하고자 하며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 간의 빈번한 교류와 지역사회조직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질서유지능력이 결정된다고 이해된다(Sampson et al., 1997; Silver & Miller, 2004).

따라서 지역사회의 사회적 교류와 유대관계(Social Interactions and Ties)는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사회통제능력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들에서 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결정짓는 지역사회 변인으로 지역사회의 친구관계와 친족관계, 지역사회 조직에의 참여,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 지역사회의 유대,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 간의 교류 등이 포함된다(Bellair, 1997; Bursik, 1999; Lowenkamp et al., 2003; Lynch et al., 2002; Morenoff et al., 2001; Sampson & Groves, 1989; Simcha-Fagan & Schwartz, 1986; Taylor et al., 1984). 지역주민들의 총체적인 사회적 교류가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며 강한 사회적 유대와 교류관계가 지역사회의 질서유지능력을 증대시켜 지역사회의 범죄와 무질서를 감소시킨다고 가정된다(Sampson et al., 1997).

하지만 최근의 논의들을 살펴보자면, 지역사회의 사회적 교류가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반드시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며 때로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의 사회적 교류와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Browning et al., 2004; Pattillo-McCoy, 1999; Wilson, 1987). 예를 들면, 지역사회의 사회적 교류가 강한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의 범죄자들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아 범죄자의 체포를 위한 정보제공을 꺼려하기도 하며 지역사회의 범죄 집단의 활성화를 돕기도 한다는 주장이다(Pattillo-McCoy, 1999; Wilson, 1987). 이 같은 주장에 대하여 Sampson과 그의 동료들(Sampson et al., 1997; Morenoff et al., 2001)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교류가 반드시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사회유대에 선행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와 같은 도시사회에서 지역사회

의 주민들의 교류가 아주 활발하지는 않으므로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사회적 교류가 정적인 관계일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왜냐하면 지역사회의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의도(Willingness)는 지역주민들 간의 사회적 교류의 정도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지역주민들 간의 상호신뢰와 결집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Sampson과 그의 동료들은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지역사회의 유대와 신뢰를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려하는데 이를 집합적 효율성(Collective Efficacy)이라 주장한다.

지역사회의 사회적 교류와 사회적 통제능력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범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므로 이들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비록 사회적 교류와 지역사회의 사회적 통제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지역주민들의 활발한 교류는 지역사회의 상호신뢰와 결집력을 높여 줄 것이라 가정될 수 있고 이러한 결과로 지역사회의 사회통제능력이 증대 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의 인적교류에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의 유대와 비공식적 사회통제는 지역사회 인적교류의 결과이며 두 변인은 강한 상관성을 가진다고 주장된다. 이 같은 논의에 기초하여 Sampson과 그의 동료들은 두 개념을 통합하여 집합적 효율성으로 측정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집합적인 통제능력을 측정하는데 유용하다는 주장한다(Sampson et al., 1997). 물론 지역사회의 유대와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인과적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 연구들에서 하나의 개념적 범주로 묶이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두 개념이 독립적인 요인으로 분석하는 것이 방법론상으로는 이론적으로 보다 유용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제기된다(박성훈, 2011; 윤우석 2010). 즉 유대와 비공식적 사회통제는 통계적 분석 자료의 지역 및 시간적 차이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가변적 개념으로 이해해야만 할지도 모른다. 이에 이 연구에서도 두 개념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서 사용 가능한지 요인분석을 통하여 고려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 3. 지역사회의 사회적 교류, 집합적 효율성, 그리고 범죄의 관계

지역과 범죄의 관계를 연구하는 생태학적 범죄학 연구들에서 중요시 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교류, 비공식적 사회통제, 집합적 효율성은 많은 연구들에서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많은 기존 연구들이 지역사회의 사회적 교류와 비공식적 통제가 지역사회의 범죄(범죄, 범죄피해, 무질서)를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Belliar, 1997; 2000; Bennet et al., 2006; Browning et al., 2003; Davis & Henderson, 2003; Markowitz et al., 2001; Morenoff et al., 2001; Sampson & Groves, 1989; Sampson et al., 1997; Simcha-Fagan & Schwartz, 1986; Taylor et al., 1984). 예를 들면, Taylor와 그의 동료들(1984)은 볼티모어의 63개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책임감의 정도와 지역사회 조직에의 참여정도가 지역사회의 폭력범죄의 발생과 부적인 관계임을 보여주었다. Simcha-Fagan과 Schwartz(1986)는 지역사회 조직에의 참여는 지역사회의 비행율을 감소시킨다고 하며 Bennett와 그의 동료들은(2006)은 지역사회의 이웃감시제도 참여가 지역사회의 범죄발생을 감소시킨다고 한다. Sampson과 Groves(1989)는 지역사회의 친구관계 네트워크와 지역사회 조직에의 참여가 지역사회의 청소년 비행을 감소시킨다고 한다. Bellair(2000)는 지역주민들 간의 비공식적 감독이 지역사회의 절도범죄를 감소시킨다고 하며 Markowitz와 그의 동료들(2001)은 지역사회의 유대가 지역사회의 범죄율과 무질서를 감소시킨다고 한다. Davis와 Henderson(2003)은 지역사회의 집합적인 효율성과 지역사회의 정치력의 정도가 범죄예방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Sabol과 그의 동료들(2004)은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집합적 효율성이 지역의 폭력범죄를 감소시켰다고 한다. Sampson과 그의 동료들(1999)의 시카고 지역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유대와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결합한 집합적 효율성의 정도가 지역사회의 범죄와 일탈행위를 결정짓는 주요한 변인이라 주장한다.

국내의 몇몇 연구들에서도 지역주민들의 교류, 참여, 유대, 비공식적 사회통제, 그리고 집합적 효율성이 지역사회의 범죄, 범죄두려움, 그리고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려는 노력이 있어왔다. 대표적으로 이성식(1998a)은 대구시의 범죄피

해 연구에서 지역사회의 범죄기회요인과 지역사회의 인적교류요인이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는데 지역사회의 활동이 활발한 사람들은 범죄피해를 덜 당한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이성식(2003) 역시, 대구시자료를 재분석하여 지역사회의 활동이 가구 내 범죄피해보다는 지역 내 범죄피해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김성언(2011)은 범죄두려움에 대한 연구에서 지역사회의 동질성 인식이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한다. 김준호와 그의 동료들(2010)은 개인의 범죄피해경험에서 개인변수와 지역변수의 상호작용효과를 보여주었고 비공식적 사회통제보다는 지역사회의 공식적인 경찰통제의 역할이 보다 범죄피해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으로 박성훈(2010)과 박정선 외 1인(2010)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유대와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범죄두려움이나 범죄피해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연구들과 비교하여 국내 연구들의 결과는 일관되지는 않으나 지역사회의 집합적 효율성과 범죄피해의 관계에 대한 보다 많은 검증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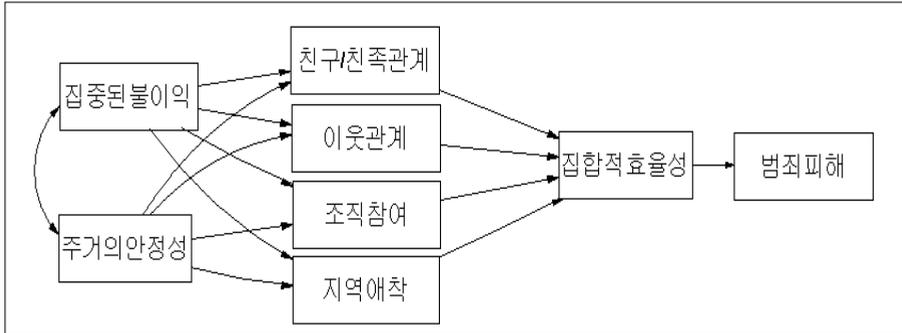
### III. 연구모델의 구성과 연구방법

#### 1. 연구모델의 구성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의 집합적 효율성이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특징인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인구가동률이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교류(친구관계/친족관계, 지역사회조직에의 참여, 지역주민들 간의 교류,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가 지역사회의 집합적 효율성에 영향을 미쳐 범죄피해를 결정할 것이라 가정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특성인 빈곤과 빈번한 인구가동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교류인 친구/친족관계 네트워크, 지역사회 조직에의 참여, 지역 주민들 간의 이웃관계,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에 부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 가정한다. 한편, 지역사회의 사회적 교류는 집합적 효율성을 감소시키기 보다는 증대시키는 관계를 가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집합적 효율성은 지역주민들의 폭력과 재산범죄피해를 감소시킬 것이라 가정하는데, 이를 시각화하자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범죄피해의 관계 연구모델



## 2. 연구방법

### 1) 연구대상과 데이터수집방법

이 연구는 지역단위의 집합적 효율성과 개인단위의 범죄피해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역과 개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자료가 요구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지역을 대구광역시로 한정하였다. 대구광역시는 영남지역의 대도시 중 하나이며 공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져 있고 인구이동이 많은 편이므로 지역사회와 범죄를 연구하기에 적절한 도시이며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범죄피해의 관계 조사가 전국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매우 의미가 있겠으나 연구자 단독으로 조사하기에는 그 범위가 넓고 비용이나 시간적 한계가 존재하므로 특정 도시를 선정하는 것이 연구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었다.

생태학적 범죄연구에서는 지역의 범위를 시군구나 읍면동 단위로 지역을 나누어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나 최근에 들어서는 보다 작은 단위의 지역이 지역사회의 고유한 특성과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교류를 제대로 반영한다는 논의가 존재하므로 이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는 대구광역시의 행정구역 중 가장 소규모인 ‘동’을 지

역사회의 단위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와 범죄연구에서 지역사회의 숫자는 일반적으로 30개 이상의 지역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 30개 이상의 '동'에서 지역사회의 자료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대구광역시에 소속되어 있는 8개 구(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에서 6개 구를 무작위로 선택하고 다시 각 구에서 6개 동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선정된 6개 구(중구, 동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중 달성군의 경우 대구시에서 유일하게 농촌지역이기에 도시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설명되고 있는 사회해체이론을 검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여 관찰대상을 2개동으로 제한하여 총 32개 동을 무작위로 선택하였고 선택되지 않았던 2개 구(서구, 수성구) 중 무작위로 선택된 수성구에서 4개동을 추가로 선정하여 총 36개동을 연구동으로 선택하였다. 각 동은 지역주민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며 인적교류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로 각 동에 존재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특성과 기능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이다. 선정된 36개 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표 1>과 같다.

한편, 지역주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과 삶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지를 고안하였고 각 동마다 20개의 설문자료 획득을 목표로 40명의 설문조사원<sup>1)</sup>을 교육시켜 설문에 임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의 기간은 2010년 11월 6일에서 28일까지 3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자료는 무작위로 선택된 36개 동의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정보공개신청을 통하여 자료를 획득하였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지역사회자료로는 동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나타내는 인구수, 전출입인구수, 총 세대수, 만 18세 이하 인구수, 기초생활수급자 수 등과 같은 자료를 요청하여 자료를 획득하였다.

1) 40명의 설문조사원은 2010년 2학기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사회과학연구방법론을 수강하는 학생들로서 설문 조사 전 연구방법론에 대한 교육을 2달 이상 받고 설문지 배부장소 및 설문 참여자 선정방식에 대한 교육을 추가적으로 2주 간 받은 대학생들이 실시하였다.

〈표 1〉 대구광역시 설문조사 선정 동

행정구역	행정동
동구	신암1동, 신암2동, 신암5동, 효목1동, 효목2동, 안심2동
남구	봉덕3동, 대명1동, 대명4동, 대명5동, 대명10동, 대명11동
북구	산격동, 대현1동, 검단동, 관음동, 동천동, 국우동
중구	동인1,2,4가동, 삼덕동, 남산1동, 남산2동, 남산4동, 대봉2동
달서구	감산동, 이곡1동, 본동, 상인1동, 도원동, 진천동
달성군	가창면, 구지면
수성구	범어4동, 만촌2동, 황금1동, 고산2동

## 2) 설문지의 구성 및 주요변인의 측정

설문의 내용은 지역주민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성별, 학력, 나이, 직업, 결혼여부, 주택소유형태, 거주 년 수), 범죄피해경험(폭력범죄, 재산범죄, 성범죄),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조사(지역사회에 대한 애착, 지역사회 조직에의 참여, 지역사회의 유대, 지역사회 주민들 간의 이웃관계, 지역사회 내에서 친구관계와 친족관계), 그리고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사회통제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지역사회변인들을 묻는 질문은 지역사회의 평균값으로 계산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 될 변인들의 측정은 다수의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 (1)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특성: 집중된 불이익, 주거의 불안정성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특성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주거의 불안정성으로 측정하고자 하며 공식통계자료인 센서스의 자료에서 2009년도 및 2010년도 자료를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정보공개신청을 통하여 획득하였다. 전통적으로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특성은 빈곤, 인종적 이질성, 그리고 거주지의 불안정성으로 측정되었으나 한국의 경우 인종적 이질성이라는 변수는 한국의 사회적 구조상 알맞지 않은 변수이므로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빈곤은 최근의 많은 연구들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지역사회(Community's Concentrated Disadvantage)로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다(Morenoff et al., 2001; Sampson et al., 1997). 기존 연구들에서 지역

사회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공식적인 자료로는 지역사회의 빈곤가구의 비율,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 여성 세대주 가구의 비율, 실업자의 비율, 그리고 18세 청소년의 비율로 계산되었는데 정보공개 자료에서는 지역의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자료와 실업자의 비율에 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측정하는 변인에서 제외되었다. 대신 개인수준의 데이터에서 가구소득의 지역평균값을 지역사회의 집중된 불이익을 구성하는 경제적 요소로 포함시켰으며 18세 청소년의 비율은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세대주의 비율로 측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18세 청소년 인구의 비율만을 단순히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지역사회의 집중적 불이익을 측정하는 변수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의 집중된 불이익은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비율, 가구의 평균소득, 그리고 지역의 여성 세대주 비율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지역사회의 거주 불안정성은 기존 연구들에서 5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 인구의 비율과 자가 주택 소유자의 비율을 합쳐서 주거의 안정성으로 측정하는 경향(Warner, 2003, p.82 참조)이 있었으나 국내의 공식통계자료는 위의 결과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다른 방식으로 주거의 불안정성을 측정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주거의 불안정성을 각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평균 거주 기간을 계산하여 사용하고자 하였다 <표 2 참조>.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조건을 나타내는 이들 두 가지 변인은 주요한 외생변인으로 사회해체이론에서 강조되는 변인들이다. 이들 두 가지 요인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두 요인의 설명력은 80%이며 지역사회의 집중된 불이익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여성세대주 비율, 그리고 가구의 평균소득을 공통적인 수치로 변환(Z-score)하여 그 합으로 계산하였고 주거의 불안정성은 지역주민의 평균거주 기간의 표준 값(Z-score)로 계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2〉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

요인 및 변수의 설명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지위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비율 지역의 여성 세대주 비율 가구의 평균소득
거주의 불안정성	지역주민들의 평균거주기간

## (2) 지역주민들의 인적교류 관련 변수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들의 삶과 관련된 변수로 지역주민들의 친구/친족관계, 지역사회조직에의 참여도, 지역주민들 간의 이웃관계,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였다. 이들 변수들은 지역과 범주를 다루는 기존 연구들에서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사회통제 혹은 집합적 효율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들로 인식되고 있다(Silver & Miller, 2004). 모든 변수의 값들은 최종적으로 표준점수(Z-score)로 변형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사회해체이론 연구에서 오랫동안 지역사회의 사회해체를 파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되었던 변수가 친구나 친족과의 인적네트워크였다(Bursik & Grasmick, 1993; Sampson & Groves, 1989).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친구나 친척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자신 및 지역사회의 문제를 직면하였을 때 도움을 요청하고 상의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Bursik & Grasmick, 1993). 실제 많은 연구들에서 친구/친족의 수가 지역의 결합과 집합적인 범죄대응능력과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Bursik, 1999; Morenoff et al., 2001; Sampson, 1991; Warner, 2003). 따라서 이 연구에서 친구/친족의 수를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하고 연구모델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친구/친족관계는 “귀하가 살고 있는 동네에 친척이 몇 명이나 살고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귀하가 살고 있는 동네에 친한 친구가 몇 명이나 살고 있습니까?”라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 값의 합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인수준의 변수인 친구/친족관계를 지역수준의 변수로 변환하기 위해 각 동마다 친구/친족관계의 평균값을 구하여 지역수준의 친구/친족관계로 계산하였다.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조직(Organization)은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역의 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을수록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 고려된다(Bursik & Grasmick, 1993). 특히 지역주민들의 지역사회조직에의 참여도는 지역의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로 인식되고 있다(Bennett, 1989, Morenoff et al., 2001; Taylor, 1996). 지역사회조직에의 참여는 “나는 동네 주민조

직(예: 아파트 부녀회, 학부모회, 주민자치센터, 동네자원봉사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 한다”와 같은 개인의 참여정도와 “우리 동네 주민들은 주민조직(예: 아파트 부녀회, 학부모회, 주민자치센터, 동네자원봉사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 한다”와 같은 지역주민들의 참여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1=참여경험 없음, 2=전혀 그렇지 않다, 3=그렇지 않은 편이다, 4=그런 편이다, 5=매우 그렇다). 지역 사회 조직에의 참여를 나타내는 다섯 문항들의 평균을 각 동마다 계산하고 이들 문항들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의 결과는 만족스러웠다(아이겐 값=4.439, 설명력=88.787%, 크론바하 알파=.967).

지역주민들의 이웃관계(Neighboring)는 수정된 사회해체이론에서 중요시 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인적 네트워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다. 주민들 간의 교류가 많을수록 지역사회의 집합적 범죄대응능력을 증대시키고 결과적으로 범죄가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이다(Belliar, 1997; Kasarda & Janowitz, 1974; Sampson & Groves, 1989). 또한 최근의 논의(Belliar, 1997)에 의하면, 도시지역에서 지역사회의 삶은 빈번한 주민들의 관계가 존재하기 어려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결과이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이웃관계는 지역사회의 범죄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이웃관계 정도를 파악하여 지역사회의 집합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지역주민들의 이웃관계는 “나는 동네 주민들을 식사, 오락, TV 시청 혹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집에 초대 한다” 등과 같은 다섯 문항으로 측정하여 응답(1= 교류가 거의 없다, 2=거의 일년에 한번, 3= 거의 한 달에 한번, 4= 거의 일주일에 한번, 5=거의 매일)하도록 하였다. 각 동 설문참여자들의 평균 응답 값을 계산하여 개개 동의 이웃관계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이웃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값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나타내었다(아이겐 값 =3.914, 설명력=78.299%, 크론바하 알파=.927).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Community Attachment)은 개인 혹은 집단과 그들 지역(Place) 사이의 긍정적인 관련성에 대한 인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Shumarker & Taylor, 1983; Taylor, 1996: 42. 재인용).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은 지역사회에 대한

자각과 지역사회의 가치를 공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인지적, 그리고 감정적 요소를 나타낸다(Taylor, 1996).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은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한다(Kasarda & Janowitz, 1974).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지역사회에 오랜 기간 거주한 사람들은 그 지역에 대한 애착이 인구이동이 심한 지역의 사람들에 비하여 높다고 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이 강할수록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Kasarda & Janowitz, 1974; Silver & Miller, 2004; Taylor, 1996). 특히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은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는 인식이므로 지역사회 자체에 대한 만족정도를 측정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지역사회의 애착은 지역사회의 만족 및 그리움을 나타내는 “우리 동네는 생활하기에 좋은 곳이다” 등과 같은 세 가지 문항들에 응답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각 동 설문 참여자들의 평균 응답 값을 계산하여 개개 동의 애착을 측정하도록 하였다.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은 적절한 값이 산출되었다(아이겐 값=2.331, 설명력=77.706%, 크론바하 알파=.817).

집합적 효율성은 지역사회의 유대와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통합한 개념이다(Sampson et al., 1997). 지역사회의 유대는 지역사회에서의 범죄를 감소시킬 것으로 가정되는데 지역사회의 유대가 강한 지역에서는 지역의 공통된 가치와 목표를 지역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라 이해된다(Lee, 2000; Sampson et al., 1997). 특히 지역사회의 중요한 공통 목표 중 하나는 지역사회의 안전(Safe)이다(Bursik & Grasmick, 1993). 지역사회의 안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은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감독할 수 있기 때문이다(Lee, 2000). 지역사회의 유대는 지역 주민들의 비슷한 관심사의 공유와 신뢰를 나타내는 여섯 문항으로 측정하고자 하였고 리커트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응답 값의 평균을 각 동의 사회유대를 묻는 지역평균 문항 값으로 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한편, 집합적 효율성을 구성하는 두 번째 변수는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사회통제다. 비공식적 사회통제란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 스스로 문제해

결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Bursik & Grasmick, 1993; Sampson, 1983; Silver & Miller, 2004). 이는 많은 연구들에서 지역사회의 범죄와 비행문제에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범죄피해 역시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Browning et al., 2003; Morenoff et al., 2001; Sampson et al., 1997).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측정하기 위해 “우리 동네의 주민들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동네건물에 함부로 낙서를 한다면 이를 저지하려 할 것이다” 등과 같은 지역 주민들의 협력적 치안활동 가능성을 묻는 여섯 문항을 질문하였고 응답 값의 평균을 계산하여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지역사회의 사회유대를 묻는 6개 문항과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묻는 6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의 결과 두 개념은 집합적 효율성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묶었다(아이겐 값=7.800, 설명력=64.998%, 크론바하 알파=.948). 결과적으로 이 연구에서 사용된 대구시 자료에서는 Sampson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1997)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유대와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집합적 효율성으로 묶이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몇몇 국내 연구들의 시도들이 지역사회의 유대와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분리된다는 주장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위치나 특성에 따라 두 변인 간의 관련성에서 차이가 발견되는 것이라 이해하는 것이 나올 것 같다.

### (3) 범죄피해

이 연구의 종속변인인 총 범죄피해는 재산범죄(자동차 절도, 절도, 소매치기), 폭력범죄(강도, 폭행), 그리고 성범죄(성희롱)에 대하여 “지난 6개월 동안” 범죄피해의 빈도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범죄피해가 없는 경우에 1로 표기하도록 하였으므로 문항의 수치를 변경하여 1을 없음(0)으로 하고 수치가 높을수록 범죄피해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하였다. 한편,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질문에서 범죄피해를 묻는 기간이 6개월로 짧고 일반적으로 범죄피해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범죄피해에 대한 경험이 0으로 치우쳐서 나타날 것이므로 정규분포를 획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이분화(Binary) 하여 선형성(Linearity)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나올 것으로 보여 최종적으로 범죄피해 있음(1)과 범죄피해 없음(0)으로 구분하였다.

## IV. 분석 결과

### 1. 지역주민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지역주민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대한 기술적 분석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710명의 응답자들 중에서 남성은 311(43.8%)이고 여성은 399명(56.2%)로 나타나 여성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 자료의 획득이 주로 오후 및 초저녁시간대에 많이 이루어져 직장에 출근하여 근무 중인 남성들의 비율이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직장생활을 위해 가정을 벗어나 매일같이 직장으로 이동하는 남성들에 비하여 여성은 지역사회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고 지역사회의 현안에 대하여 보다 더 이해도가 높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여성 응답자의 비율이 높은 것이 지역사회 관련 변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표 3> 지역주민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대한 기술적 분석

변수		빈도(N)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최소 값	최대 값
성별	남성	311	43.8				
	여성	399	56.2				
연령		710		38,933	14,260	18	80
학력	무학	5	.7				
	초등학교 졸업	16	2.3				
	중학교 졸업	60	8.5				
	고등학교 졸업	207	29.2				
	2년제 대학 졸업	158	22.3				
	4년제 대학 졸업	232	32.7				
	대학원 이상	32	4.5				
결혼여부	미혼	293	41.3				
	기혼동거	365	51.4				
	기혼별거	7	1.0				
	이혼	15	2.1				
	배우자사별	19	2.7				
	기타	11	1.5				

거주형태	자가	449	63.2		
	전세	147	20.7		
	월세	90	12.7		
	기타	24	3.4		
거주기간		710		108,146(약 9년)	1개월 720개월

응답자들의 평균 연령은 38.9세였고 응답자 중 최고령자는 80세였다.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 232명(32.7%)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자가 207명(29.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학력을 비교하였을 때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학력이 가장 낮은 동은 학력의 평균이 3.95였고 가장 학력의 평균이 높은 동은 5.76이었다. 결혼여부를 묻는 질문에 미혼이라 응답한 사람은 293명(41.3%)이었으며 이혼, 별거, 사별 중인 가정은 41명(5.8%)이었고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365명(51.4%)으로 가장 높았다. 거주형태는 자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449명(63.2%)로 가장 많았으며 전세 20.7%, 월세 12.7% 순이었다. 지역주민들의 거주기간의 평균은 108.146개월로 약 9년이었으며 1개월에서 720개월까지 거주기간의 범위가 매우 컸다. 동별로 거주기간의 차이를 비교하자면 거주기간의 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은 183.45개월이었으며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낸 지역은 41.4762개월이었다.

〈표 4.〉 지역수준의 변인들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

변수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N
집중된 불이익	.000	-1,97418	1,84248	1,000	36
주거의 안정성	.000	-1,60554	2,81154	1,000	36
친구/친족관계	.000	-1,14016	3,30441	1,000	36
사회조직참여	.000	-1,78860	2,10435	1,000	36
이웃관계	.000	-1,68858	2,40805	1,000	36
지역애착	.000	-1,48307	2,35113	1,000	36
집합적 효율성	.000	-1,88498	2,35568	1,000	36

## 2) 지역사회변인들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기능적 특성과 관련된 변인들의 기술적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모든 지역변수들은 표준점수(Z-score)화하였으므로 동일하게 평균 값은 0이고 표준편차는 1이었다. 지역사회의 집중된 불이익을 제외하고 음의 부호를 나타내는 값들은 평균으로부터 낮은 점수를 의미하며 평균보다 높은 점수는 양의 값을 가지도록 하였다.

## 3) 지역사회 변인들 간의 관계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기능적 특성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분석의 결과는 <표 5>과 같으며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6>의 결과와 같다.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의 결과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인 집중된 불이익과 주거의 안정성은 지역사회의 애착, 이웃관계, 친구/친족관계, 지역사회조직에의 참여, 그리고 집합적 효율성에 제한적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표 5> 지역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V1	V2	V3	V4	V5	V6	V7
친구/친족(V1)	1						
조직참여(V2)	.529***	1					
이웃관계(V3)	.321	.735***	1				
지역애착(V4)	.052	.394**	.434**	1			
불이익(V5)	.021	-.088	.051	-.532**	1		
주거안정(V6)	.436***	.289	.443**	.102	.251	1	
집합적효율성(V7)	.207	.654***	.728***	.618***	-.106	.382*	1

# p<.10, \* p<.05, \*\*<.01, \*\*\* p<.001

지역사회의 집중된 불이익은 지역주민들의 애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다른 기능적 요인들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와 6. 참조). 비록 지역사회가

경제적으로 빈곤할지라도 지역주민들의 인적네트워크와 지역사회 조직에의 참여 그리고 지역주민들 간의 이웃관계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들에서도 지역사회의 경제적 빈곤이 지역주민들의 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Liska & Warner, 2001; Sampson, 1988; Sampson, 1991)와 관련성이 없다는 연구들(Geis & Ross, 1998; Rountree & Warner, 1999; Sampson, 1988; Warner & Rountree, 1997), 그리고 교류를 활성화 한다는 연구(Bellair, 1997; Swaroop & Morenoff, 2006)가 복합적으로 상존하고 있어 그 영향력을 결론내리기 어렵다. 이 결과에 기초할 때, 대구지역의 경우 지역사회의 집중된 불이익은 지역주민들의 인적 교류에는 영향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지역사회의 집중된 불이익은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에 상당히 큰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때 지역사회가 경제적으로 빈곤할수록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거주 지역에 대하여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지역변인들 간의 회귀분석

독립변인	친구/친족	참여	이웃관계	애착	집합적 효율성
	계수(b)	계수(b)	계수(b)	계수(b)	계수(b)
집중적불이익	-.094	ns	-.065	-.595**	
주거안정	.460**		.459**	.252	
친구/친족관계					-.081
조직에의 참여					.256
이웃관계					.418*
애착					.340**
R-square	.199*	ns	.200*	.343**	.665**

\* = p <.05, \*\* = p <.01

지역사회의 거주 안정성(Residential Stability)은 지역사회의 인적교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주민들의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역주민들은 그들의 거주 지역에서 보다 더 많은 친구와 친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역주민들 간의 이웃관계 역시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와 6 참조). 또한 거주 안정성은 지역사회의 집합적 효율성과도 정적인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거주지의 안정성이 경제적인 측면보다 지역사회의 집합적 범죄통제능력에 보다 관련성이 높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특성 중 거주지의 안정성이 대구시에 소속된 각 동의 지역주민들의 삶에 보다 큰 관련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한편 집합적 효율성과 지역주민들의 인적교류, 애착, 그리고 사회조직에의 참여가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표 5 참조).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지역사회 조직에의 참여도가 높고 지역 주민들 간의 이웃관계가 빈발하게 일어날수록 지역사회의 집합적 효율성이 높았다. 네 가지 지역사회의 기능적 변인들이 집합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지역주민들의 이웃관계와 애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변인인 반면 지역사회의 인적네트워크나 참여는 지역사회의 집합적 효율성에 효과가 없었다(표 6). 다만 이 결과는 분석상의 자유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과로 신뢰성이 아주 높지는 않다. 왜냐하면 전체 분석에 사용된 동의는 36개인데 집합적 효율성을 예측하는 모델에 사용된 독립변인의 수는 4개로 충분한 자유도 확보가 어려워 예측의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 4) 지역사회 범죄피해의 실태

범죄피해는 차량절도, 절도, 소매치기 등의 재산범죄와 강도와 폭행의 폭력범죄 그리고 성희롱을 포함한 모든 범죄피해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표 7>은 범죄피해에 대한 결과표이다.

〈표 7〉 범죄유형별 범죄피해경험 여부

변수		빈도(N)	퍼센트(%)
총 범죄피해여부	없음	480	67.6
	있음	230	32.4
폭력범죄피해여부	없음	644	90.7
	있음	66	9.3
재산범죄피해여부	없음	522	73.5
	있음	188	26.5
차량절도피해여부	없음	590	83.1
	있음	120	16.9

절도피해여부	없음	622	87.6
	있음	88	12.4
강도피해여부	없음	685	96.5
	있음	25	3.5
소매치기피해여부	없음	666	93.8
	있음	44	6.2
집박강도피해여부	없음	675	95.1
	있음	35	4.9
낯선 사람 폭행피해여부	없음	689	97.0
	있음	21	3.0
지인폭행피해여부	없음	679	95.6
	있음	31	4.4
성희롱피해여부	없음	658	92.7
	있음	52	7.3

지난 6개월 동안 전체 범죄유형에서 한번이라도 범죄피해가 있는 경우는 전체 710명의 응답자 중 230명(32.4%)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폭력범죄는 재산범죄에 비하여 그 피해빈도가 낮으나 9.3%의 응답자가 폭행이나 강도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재산범죄의 경우는 26.5%의 응답자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응답하여 폭력범죄 보다는 재산범죄피해가 보다 빈번하게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차량절도(차량 도난 및 차량내부 물품 도난)가 응답자 중 120명(16.9%)이 지난 6개월 동안 절도피해를 당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보급은 2.6명 당 한 대꼴로 일반화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자동차 관련된 재산범죄피해가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에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차량절도피해와 더불어 재산범죄를 나타내는 절도 피해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 중 12.4%(88)가 지난 6개월 동안 1회 이상의 절도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치기피해 역시 생각보다 빈발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6개월 간 소매치기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44명(6.2%)에 달하였다. 폭력범죄는 강도피해와 폭행피해로 측정되었는데 전반적으로 강도피해의 빈도는 낮았으나 집박 강도와 일반 강도피해를 종합할 경우 그 수치가 60명에 달하였다. 폭행피해는 낯선 사람에 의한 폭행과 지인에 의한

폭행으로 나누어 측정되었는데 낯선 사람에 의해 폭행을 당한 사람이 지나 6개월 동안 21명에 달하고 지인에 의한 폭행 역시 31명이 피해를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적한 거리나 지하철, 버스 등에서 발생한 성희롱피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52명(7.3%)의 응답자가 피해를 보고하였다.

### 5) 집합적 효율성이 범죄피해경험 여부에 미치는 영향

개인수준의 범죄피해경험에 지역사회의 집합적 효율성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집단수준의 데이터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분석모델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두 단계의 자료를 분석할 때에는 위계선형회귀분석모델을 사용한다(Bryk & Raudenbush, 1992). 위계선형회귀분석은 지역 내와 지역 간의 방정식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통계분석방식이며 회귀계수의 계산과 엄격한 표준오차의 계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Sampson et al., 1997; Lynch et al., 2002). 한편, 이 연구에서 사용된 개인수준의 범죄피해경험은 선형(Linear)의 종속변수가 아니라 비선형(Non-linear)의 종속변수이므로 위계선형분석모델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비선형위계분석모델(HGLM: Hierarchical Generalized Linear Models)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경험은 피해 있음(1)과 피해 없음(0)의 이분법적 변인이므로 비선형위계분석모델 중에서 Bernoulli 모델을 사용하면 된다(Raudenbush et al., 2004: 115).

<표 8>은 지역사회의 집합적 효율성이 전체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표이다. <모델 1>은 범죄피해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살펴본 결과이다. 분석 결과 개인의 성별, 나이, 학력, 자가 여부는 범죄피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수준의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지역변수가 개인변수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볼 필요성이 없기에 지역변수의 독립적인 영향을 파악하는 모델 및 전체 변인들을 동시에 고려한 모델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모델 2>는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이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이다. 분석결과 지역사회의 집합적 불이익은 범죄피해와 관련이 없었으나 지역사회의 주거안정성은 범죄피해를 높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나 연구가설과는 반대방향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지역주민들의

거주기간이 긴 지역일수록 범죄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이다. <모델 3>은 지역주민들의 인적교류와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이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분석 모델이다. 분석결과 지역주민들의 인적교류나 상호작용은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 역시 유의미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집합적 효율성을 고려한 <모델 4>의 결과는 집합적 효율성이 범죄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집합적 효율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역주민들이 범죄피해를 보고할 가능성이 31.46% 낮아진다는 결과이다. 이 결과는 기존 범죄생태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역의 집합적 범죄대응능력의 중요성을 재확인 시키는 결과이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나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의 결과에서 추론할 때 지역주민들의 교류를 나타내는 변수를 중 집합적 효율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애착, 이웃관계, 조직에의 참여는 집합적 효율성에 영향을 주어 범죄피해를 감소시키는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역의 구조적인 특성인 집중적 불이익은 지역의 애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집합적 효율성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범죄피해를 증가시킬 것이며 지역의 주거안정성은 지역의 인적네트워크를 강화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이웃관계를 활발하게 하여 집합적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간접효과를 가진다. 또한 주거의 안정성은 직접적으로도 지역의 집합적 효율성을 증가시켜 범죄피해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이는 <모델 2>의 결과에서처럼 주거의 안정성이 범죄피해를 증대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시킬 것이며 주거의 안정성과 범죄피해의 관계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요구되는 결과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역의 기능적 변인들이 집합적 효율성을 제외하고는 직접효과가 없다는 점이다. 많은 기존 연구들에서 지역의 인적네트워크, 조직에의 참여, 애착 등은 범죄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이해되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변인들의 설명력이 매우 낮았으며 관련성을 찾기 어려웠다. 또한 범죄피해는 개인의 인구학적 변인에 기초하기 보다는 개인수준의 삶의 방식이나 범죄기회의 노출 등과 같은 범죄기회 요인의 고려가 요구된다.

〈표 8〉 집합적 효율성이 전체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모델			
	모델1	모델2	모델 3	모델4
	Odd	Odd	Odd	Odd
상수	.3937*	.4762**	.4747**	.3808**
성별	1.035			1.0387
연령	1.009			1.0074
자가 여부	.9615			.9709
학력	1.0406			1.0439
집중적 불이익		1.0152	1.1324	.9747
주거안정		1.1947*	1.1548	1.336*
친구/친족관계			.8919	.9781
조직참여			.8948	1.3651
지역애착				.9021
이웃관계				.9916
집합적 효율성				.6854*

\* = p &lt;.05, \*\* = p &lt;.01

## V.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의 집합적 효율성이 지역 주민들의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집합적 효율성이론은 고전적 사회해체이론에서 발전한 수정된 사회해체이론에서 지역사회의 범죄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변인이며,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인적교류와 애착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범죄와 범죄피해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기에 이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수행을 위해 대구광역시 8개 구 중 6개 구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다시금 각 구에서 36개 동을 선정하여 각 동마다 20명의 시민들로부터 자료를 획득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정보공개신청을 하여

지역사회의 센서스 자료를 획득하였다. 분석은 기술적 분석, 교차분석, 상관관계 분석, 선형회귀분석, 비선형위계선형모델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 하자면, 지역사회에 집중된 불이익은 기존 연구와는 달리 지역주민들의 인적교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정서적 만족도를 나타내는 애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의 집중된 불이익은 지역사회의 애착을 통해 집합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국 범죄 피해에 미약하나마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주거안정성은 지역사회의 친구/친족관계를 증대시키고 지역 주민들 간의 이웃관계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주민들의 거주기간이 증대될수록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사회의 주거안정성은 지역주민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집합적 효율성을 증대시키지만 범죄를 유발하는 효과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의 주거안정성과 범죄피해의 관계에 대한 범죄 기회론적 접근 역시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집합적 효율성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주거안정성,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 그리고 이웃관계가 증가될수록 지역사회의 문제에 지역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기존 논의들과 유사한 결과로서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 간의 교류가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웃관계와 애착이 집합적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나 지역주민들 간의 교류 활성화가 지역사회의 집단적 범죄통제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역사회의 범죄통제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는 결과였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지역사회의 집합적 효율성이 직접적으로 범죄피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 수준의 범죄피해는 지역수준의 집합적 효율성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집합적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적 방안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의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지역사회가 빈곤할수록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이 떨어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집합적 효

율성이 약화되어 범죄피해를 증가 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가구가 스스로 경제적 독립을 성취할 수 있는 취업알선과 취업교육이 요구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마련을 위해 지방정부가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여성세대주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역사회의 집중된 불이익이 증가함으로 가족붕괴를 막을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가족의 붕괴는 결과적으로 여성세대주의 수를 증가시키며 여성세대주 가구가 일반적으로 남성세대주 가구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볼 때 이들 가구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일자리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지역사회의 거주안정성은 지역주민들의 교류와 집합적 효율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지방정부는 지역주민들의 빈번한 전출입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거주 안정성은 거주기간의 평균에 기초하여 측정되었으므로 거주기간이 길다고 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거주기간이 매우 짧은 지역에 비하여 지역사회의 인적교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살기 좋은 지역사회 형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낙후된 지역을 재개발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삶의 환경을 제공하고 병원, 학교, 여가시설 등의 확충이 요구된다. 다만, 지역사회의 주거 안정성이 직접적으로 범죄피해를 증가시킨다는 결과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요구된다. 이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살펴볼 때, 지역사회의 주거안정성이 높은 지역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친구/친족이 많이 살고 있으며 이웃관계가 활성화 되어 집합적 효율성을 증가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지만 한편으로는 잦은 교류관계로 인해 범죄피해의 노출이 높아질 가능성 역시 존재할 것이다. 즉, 자신들의 거주지에서 친구나 친척과의 교류가 활발하면 야간활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활동성의 증가는 범죄표적이 되기 쉬운 가능성을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의 주거안정성을 증대시키면서 범죄기회를 차단할 수 있는 노력 역시 요구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집합적 효율성은 지방정부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

사회의 모임을 정례화하고 지역주민들 간의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 동마다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지역모임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존재한다.

이상에서 지역사회 집합적 효율성과 범죄피해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연구결과를 논의하였다. 지역사회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삶을 공유하고 있는 생태적 공간으로써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지역의 지방정부 역시 지역주민들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감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들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집합적 사회통제가 증가된다면 지역의 범죄피해 예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내논문

- 김성언 (2011). 범죄의 두려움과 주거 단지의 요새화, 형사정책연구, 22(4): 315-346.
- 김준호·박현수·박성훈(2010). 한국의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1(3):135-172.
- 박성훈 (2011). 범죄기회요인과 지역특성이 가구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22(3):327-357.
- 박정선·이성식 (2010). 범죄두려움에 관한 다수준적 접근: 주요 모델들의 검증, 형사정책연구, 21(3):173-203.
- 윤우석 (2010). 경찰의 공식적 사회통제가 지역사회의 유대와 비공식적 사회통제에 미치는 영향검증, 형사정책연구, 21(3):381-407.
- 이성식 (1998a). 범죄피해에 있어 개인수준 요인들의 지역 조건적 효과: 거시이론과 미시이론의 통합 이론적 접근,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2(1):85-109.
- \_\_\_\_\_ (1998b). 거주지역의 특성과 개인의 범죄피해: 거시 및 미시수준의 연계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6:113-143.
- \_\_\_\_\_ (2003). 지역무질서, 지역유대와 범죄피해의 관계, 피해자학연구, 11(1): 87-106
- 정진성·박현호 (2010).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이 살인범죄에 미치는 영향: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음이향 회귀분석, 형사정책연구, 21(1):91-119.
- 정진성·황의갑 (2010). 살인범죄의 원인에 대한 거시적 분석: GIS를 활용한 공간 회귀모델링, 형사정책, 22(1):157-184.

### 국외논문

- Anderson, E. (1999). Code of the street: Decency, violence, and the moral life of the inner city. New York: Norton.

- Baumer, E.P. (2000). Neighborhood disadvantage and police notification by victims of violence. *Criminology*, 40(3), 579-616.
- Bellair, P. (1997). Social interaction and community crime: examining the importance of neighborhood networks. *Criminology*, 35, 677-703.
- \_\_\_\_\_ (2000). Informal surveillance and street crime: a complex relationship. *Criminology*, 38, 137-170.
- Bennett, T., Holloway, K., & Farrington, P.D. (2006). Does neighborhood watch reduce crim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Experimental Criminology*, 2, 437-458.
- Browning, C.R., Feinberg, S.L., Dietz, R.D., (2004). The paradox of social organization: networks, collective efficacy, and violent crime in urban neighborhoods. *Social Forces*, 83(2), 503-534.
- Bursik, R. (1988). Social disorganization and theories of crime and delinquency: problems and prospects. *Criminology*, 26(4), 519-551.
- Bursik, R. & Grasmick, H.G. (1993). Neighborhoods and crime: the dimensions of effective community control. New York: Lexington Books.
- Crutchfield, D.R., Geerken, R.M. & Gove, R.W. (1982). Crime rate and social integration. *Criminology*, 20(3), 467-478.
- Davis, C.R. & Henderson, J.N. (2003). Willingness to report crimes: the role of ethnic group membership and community efficacy. *Crime and Delinquency*, 49, 564-580.
- Hagan, J., Gillis, A.R., Chan, J. (1978). Explaining official delinquency: a spatial study of class, conflict and control. *The Sociological Quarterly*, 19(3), 386-398.
- Hipp, J.R. (2007). Income inequality, race, and place: does the distribution of race and class within neighborhoods affect crime rates? *Criminology*, 54(3), 665-697.

- Jacobs, D. & Helms, R.E. (1997). Testing coercive explanations for order: the determinants of law enforcement strength over time. *Social Forces*, 75(4), 1361-1392.
- Kasarda, D.J. & Janowitz, M. (1974). Community attachment in mass socie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9, 328-339
- Kovandzic, T.V., Vieraitis, L.M. & Yeisley, M.R. (1998). The structural covariates of urban homicide: reassessing the impact of income inequality and poverty in the post-Reagan era. *Criminology*, 36(3), 569-600.
- Krivo, L.J. & Peterson, R.D. (1996). Extremely disadvantaged neighborhoods and urban crime. *Social Forces*, 75(2), 619-650.
- Lowenkamp, T.C., Cullen, T.F. & Pratt, C.T. (2003). Replicating Sampson and Groves's test of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revisiting a criminological classic.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0, 351-373.
- Lynch, J.P., Sabol, W.J., Planty, M. & Shelly, M. (2002). Crime, coercion and community: the effects of arrests and incarceration policies on informal social control in neighborhoods. Final Report,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Washington, D.C.
- Markowitz, F., Bellair, E.P., Liska, E.A. & Liu, J. (2001). Extending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Mode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hesion, disorder, and fear. *Criminology*, 39, 293-320.
- Morenoff, J. Sampson, J.R. & Raudenbush, S. (2001). Neighborhood inequality, collective efficacy, and the spatial dynamics of urban violence. *Criminology*, 39, 517-560.
- Pattillo-McCoy, M. (1999). Black picket fences: Privilege and peril among the black middle clas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ountree, W.P., Land, C.K. & Miethe, D.T. (1994). Macro-micro integration in the study of victimization: a hierarchical logistic model analysis across Seattle neighborhoods. *Criminology*, 32(3), 387-414.

- Sampson, J.R. (1988). Local friendship ties and community attachment in mass society: a multilevel systemic model.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3, 766-779.
- Sampson, J.R. & Groves, W.B. 1989. Community structure and crime: Testing social-disorganization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4), 774-802.
- Sampson, J.R., Raudenbush, S. & Earls, F. (1997).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77, 918-924.
- Sampson, J.R., Morenoff, D.J. & Earls, F. (1999). Beyond social capital: spatial dynamics of collective efficacy for childr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4, 633-660.
- Sampson, J.R., Morenoff, D.J. & Gannon-Rowley, T. (2002). Assessing 'neighborhood effects': social processes and new directions in research. *Annual Review of Sociology*, 28, 443-478.
- Sampson, J.R. & Wooldredge, D.J. (1987). Linking the micro-and macro-level dimensions of lifestyle-routine activity and opportunity models of predatory victimization.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3(4), 371-393.
- Shaw, C.R. & McKay, H.D. (1942). *Juve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ilver, E. & Miller, L.L. (2004). Sources of informal social control in Chicago neighborhoods. *Criminology*, 42(3), 551-583.
- Simcha-Fagan, O. & Schwartz, E.J. (1986). Neighborhood and delinquency: as assessment of contextual effects. *Criminology*, 24, 667-704.
- Taylor, R. B. (1996). Neighborhood responses to disorder and local attachments: the systemic model of attachment, social disorganization, and neighborhood use value, *Sociological Forum*, 11, 41-74.

- Taylor, R. B, Gottfredson, S. & Brower, S. (1984). Block crime and fear: defensible space, local social tie, and territorial functioning.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1, 303-331.
- Warner, D.B. (2003). The role of attenuated culture in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Criminology*, 41(1), 73-97.
- (2000). Informal social control of crime in high drug use neighborhoods in Louisville and Lexington, Kentucky, 2000. ICPSR. Michigan.
- Warner, D.B. & Rountree, W.P. (1997). Local social ties in a community and crime model: questioning the systemic nature of informal social control. *Social Problems*, 44(4), 520-536.
- Wilson W.J. (1987). *The truly disadvantaged: the inner city, the underclass, and public policy*. Chicago. III.: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es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y's Informal Social Control and Victimization : Focusing on Daegu Metropolitan City Area

Yun, Woosuk\*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 the effect on community's collective efficacy on victimization of community residents. Specifically, community characteristics of socio-economic status and residential mobility determines residents' social interactions and social interactions including friendship/kinship networks, vitalization of community organization, attachment of community and neighboring of residents affect the level of collective efficacy which is a core element of maintaining social order and then determine occurrence of crime and victimization in a community.

To accomplish the goal of this study, 36 Dongs of 8 Gus were randomly selected with 20 subjects around Daegu Metropolitan City. Korea Public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were used to collect the community data of structure characteristics by contacting community centers in each Dong. The results show that collective efficacy successfully predicts victimization of community residents and negative relationships which means that stronger collective efficacy can reduce the less victimization of residents. Meanwhile, structure characteristics and residents' social interactions and attachment failed to show direct effects on victimization, but through collective efficacy they showed indirect effects.

---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Keimyung University

❖ Key words : Victimization, Collective Efficacy, Social Cohesion, Residential Stability, Social Interactions

투고일 : 3월 2일 / 심사(수정)일 : 3월 26일 / 게재확정일 : 4월 3일